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부활 제 2 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2026년 4월 12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부활 , 캔버스에 아크릴 (91 x117 cm) 2022 정미연 (아기 예수의 데레사) 그림

작가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시대의 아픔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지구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 부활 사건이 2천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자 한다. 정미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작가는 효성여자대학교 (현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서울주보’와 ‘대구주보’에 표지화를 실었다. 경기도 사도 모후의 집, 여산 성지,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에 성물을 봉헌했으며, 전주 권상연 야고보 성당 전체 성물을 제작하였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카톨릭 성가집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부활

Allegro
mf

1.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
2. 인류 구원하시 고자 사랑
3. 죽으신 지사 - 흘 - 만 에 우 리
4. 부활 하신 우 리 - 주 께 영 원

mf

도 다 알 려 - 루 - 야 에 수 부 활 아 - 니 -
됨 을 마 다 - 앎 - 고 천 주 성 자 강 - 생 -
주 님 전 능 - 으 - 로 영 혼 육 신 결 - 합 -
무 궁 영 광 - 이 - 여 부 활 하 신 우 - 리 -

mf

시 - 면 구 속 사 업 헛 되 도 다
하 - 사 십 자 가 에 죽 으 셸 네 알 려
하 - 사 새 벽 녀 에 부 활 했 네
주 - 여 우 리 부 활 시 키 소 서

f

루 야 알 려 루 - 야 알 려 루 야 에 수 부 활 이

f

여 영 광 이 여 우 리 주 에 수 께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중 하나를 읽어 주십시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요한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태어나면서 눈 먼 사람”(요한 9,1)** 눈이 보이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눈 먼 사람임을 느낍니다. 교만하지 않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A2]
- **“눈먼 사람”(요한 9,1)** 기적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곁에 계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데, 정작 기적만을 바라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NV2]
- **“가서 씻어라”(요한 9,7)**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는 과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RC3]
- **“가서 씻어라”(요한 9,7)** 단순한 행동이지만, 눈 먼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은혜를 얻게 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TR3]
- **“가서 씻고”(요한 9,7)** 진흙을 발라 주신 순간 바로 눈을 뜰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성서에서 마법 처럼 단번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적을 받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완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시간이 ‘가서 씻는’ 과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제대로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TR3]
-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요한 9,9)** 눈먼 사람이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 주어진 기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생이 급성간염으로 중환자실까지 입원했다가 기적 처럼 회복되었던 일을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깊이 느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 역시 삶으로 증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TR3]
-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요한 9,17)** 하느님과 예수님은 자체로 존재하시지만, 이 질문이 나 자신에게 던져지는 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매맞고 조롱받는 나약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사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RC2]
-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요한 9,34)**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집 때문에 항상 제 생각에 옳은 길로만 가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NV2]
-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요한 9,34)** 바리사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눈 먼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도가 개인의 권리인지 공공의 권익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1]
-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요한 9,36)** 요즘 성경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깊이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NV2]
-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요한 9,37)**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께 답을 구하지만, 그 답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RC2]
-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요한 9,37)** 눈 먼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시 묻는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TR3]

-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요한 9,37) 주님은 이미 곁에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깨닫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R3]
-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의심하지 말고 확고히 믿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다가오는 부활절을 되새기면서 의심을 버리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절제하고 선행하는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CT]
-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9일 기도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지향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V2]
-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일 때문에 주일미사에 자주 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처음 성당에 오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이 약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다시 따르리라 다짐합니다. [NV3]
-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쉽게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NV3]
-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면서 단순한 기쁨 뿐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도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TR3]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카톨릭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부활 부활하신 주 예수 137

빠르고 명랑하게

손복희 작사

Robert Williams



1. 부활하신 주 예수 알 - - 렐 - 루 야
 2. 당신 백성 모아-서 알 - - 렐 - 루 야
 3. 승천하신 주님-을 알 - - 렐 - 루 야



두 손 높이 펴시-고 알 - - 렐 - 루 야
 축복하여 주시-고 알 - - 렐 - 루 야
 만민들은 우러-러 알 - - 렐 - 루 야



제자들을 보-시-며 알 - - 렐 루 야
 영광중에 주-예-수 알 - - 렐 루 야
 기쁜마음 님-쳐-서 알 - - 렐 루 야



하늘 나라 오르-네 알 - - 렐 - 루 야
 우리앞서 가시-네 알 - - 렐 - 루 야
 찬미노래 부르-네 알 - - 렐 - 루 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7, 27)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확신은 때로 자만이나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의 복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나자렛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을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 합니다.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소중한 만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안다고 자만하다가 정작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교훈이나 은총의 순간을 놓쳐 버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신 마을을 안다는 이유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심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었을 주님과 만남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But we know where he is from. When the Messiah comes, no one will know where he is from.” (John 7, 27)

We often think we know more than we do.

We are convinced that we should do this, not that; listen to her, not him. Occasionally, we act this way because pride and arrogance get the best of us. But more often than not, we simply aren't as open-minded as we should be.

This Gospel story is a powerful reminder to be humble and curious. The people of Jerusalem are confused about Jesus' identity, convinced that he cannot be the Christ because they know where he is from. He grew up in Nazareth. When it comes to the real Christ, no one will actually know where he is from. Right?

It's easy to underestimate the people we know. It's easy to undervalue significant interactions because they seem ordinary. It's easy to miss important lessons or meaningful moments because we *think* we know how certain scenarios are supposed to play out.

The people of Jerusalem doubted Jesus' identity as the Christ because they knew the town where he was raised. While I don't blame them for being skeptical, the takeaway from this story is clear. If they had remained more open-minded, they w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Jesus in a way that may have changed their lives. And they would have learned that there is quite a bit more to his story.

Accepting that there are things we don't know and people we can learn from is fundamental to a life worth living. By being constantly curious, we allow ourselves the chance to be changed by some beautiful surprises.

글: Jackson Goodman

출처: America Magazines (Scripture Reflections)